

	보도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	작성과	자원개발과
		담당자	이유종 과 장 박종원 사무관
		전 화	2110 - 5434

<PC통신 : go opengo, 천리안 go epic, 인터넷 : <http://www.mocie.go.kr>>

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資金 지원 대폭 확대

- 輸銀·석유공사, 전략적 제휴로 輸銀의 해외 유전개발 지원 대폭 증대 -
-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 추진 -

1. 석유공사와 수출입은행은 5.11(화) COEX에서 「해외석유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(이하 업무협약)」을 체결함

- * 일시 및 장소 : 5.11(화) 11:20, COEX(회의장 2층 ASEM Hall)
- * 서명자 : 석유공사 이억수 사장, 수출입은행 신동규 은행장

☐ **석유공사-수출입은행간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**

-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여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하고
- 금리, 대출기간 등 금융조건에 대해서도 우대하는 것 등임

☐ **이번 석유공사와 수출입은행간 업무협약이 체결됨으로써**

- '03년 570억원 규모의 수출입은행 해외자원개발 사업 금융지원액이 금년도에는 1,000억원, '05년도에는 2,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- 카자흐스탄, 시베리아, 아프리카 등에서의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輸銀의 정책자금 활용이 용이해 질 것으로 평가됨

* 輸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액(억원) : ('03) 570 → ('04) 1,000 → ('05) 2,000

2.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, 고위험의 사업 특성상 정부가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해 융자자금을 지원해 왔으나, 그간 업계에서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자금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음

□ 이에 따라 정부(산자부)는 해외자원개발 업계, 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「해외자원개발 민관협의회」를 통해 금융·재정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해 왔는 바, 지난 4.23일 산자부 자원정책국장 주제로 열린 「해외자원개발 민관협의회」에서는

-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자금 확대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輸銀 융자자금의 대출 조건(금리 등)을 완화하고,
- 한정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輸銀의 해외자원개발 자금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개발·생산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, 정부 예산은 민간의 수요가 큰 탐사 성공불 지원에 초점을 두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한 바 있음

* 성공불 융자 : 유전 개발에서의 낮은 탐사성공율(5-10%)로 인한 사업자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탐사 실패시 융자 원리금을 감면하는 대신, 탐사에 성공할 경우 융자원리금에 일정 비율의 성공 특별부담금을 징수하여 재투자재원으로 사용('83년 도입)

* 예멘 마리브 광구, 베트남 15-1광구, 미얀마 가스전 등이 성공불 융자의 대표적 사례

□ 이번 석유공사와 수출입은행간 업무약정은 그간 「해외자원개발 민관협의회」를 통해 논의되어 온 해외자원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·재정지원 방안의 구체적 성과로 평가되며

-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현재 10% 수준인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지원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20%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임

* 정부예산(에특) 해외 자원개발 융자액('04) : 2,260억원

3. 한편, 금년중 우리 기업이 33.33%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형 유전인 리비아 엘리펀트 광구에서 본격적인 상업생산이 시작 (6월중, 5만B/D)되고, 베트남 15-1광구(우리지분 23.25%)의 증산 (5만B/D → 7만B/D)등으로 금년도 원유 자주개발율은 지난해 3%에서 4.1%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,

□ 현재 추진중인 카스피해, 아프리카(베넵 등),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유전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2010년 원유 자주 개발율 10%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